

<하기 글은 2016년 10월 4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맑은 날씨와 함께 봄기운을 느낄 수 있었던 지난 16일, 2017년을 여는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의 첫 회의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기 임기 중 마지막 회의여서 더욱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새해를 맞아 더욱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정기회의 현장,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반가운 얼굴로 새해 인사를 나눈 후, 지난 2개월간 접수된 지역주민들의 주요 민원 내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회원들은 주민들의 각종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좌: 개선 전 / 우: 개선 후>  
▲ 동일한 외기조건(온도 -5° / 습도 50%)에서 촬영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최근 내·외부 온도 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수증기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증기는 설비의 냉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수증기 발생 원인과 저감 기술 적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 지난 1월에 겨울방학을 맞아 진행한 ‘삼성전자 환경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 현장을 영상으로 감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전자 DS부문이 용인시와 화성시 청소년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여름·겨울방학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200여 명이 넘는 지역 청소년이 참가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개월간 진행된 삼성전자의 주요 사회공헌활동 현황을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월, 임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으로 바자회를 열어 발생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했는데요. 또한, 설 명절을 맞이해 복지시설과 소외계층 가정에 직접 찾아가 부식세트를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 마지막 회의인 만큼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3기 위원들은 여는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지난 활동을 되짚어보며 시원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2017년에도 이어질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의 행보에도 큰 기대감을 가지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탄1동 이미숙 위원 /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소통협의회 활동을 하며 지역주민과 삼성전자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정말 뜻 깊었는데요. 그동안 함께 노력한 3기 위원들과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길 바랍니다. 파이팅!”

지금까지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2월 정기회의의 현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3기 위원들! 2017년에도 계속될 그들의 소통 행보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